

# 한 미국 신문과신문사의 이면

캐롤 펠센탈 지음 「권력, 특권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남편 사망후 워싱턴 포스트지의 경영일선에 나서 발군의 실력을 내보인 캐더린 그라함. 사진은 후에 자회사 포스트지의 발행인을 지냈던 아들 도널드 에드워드 그라함과 대정할 때.

캐롤 펠센탈(Carol Felsenthal)이 상재한 「권력, 특권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POWER, PRIVILEGE, AND THE POST, The Katharine Graham Story”, 512 pp. New York : G.P.Putnam's Sons) 속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과 관련된 두 일화들을 우선 소개하면, 남편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양으로 두어 걸을 뒤통수 걸을 만큼 ‘이쁜여자’가 어느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신문 발행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캐더린이 결혼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케네디풍으로’ 댄디한 필립 그라함이라는 청년이 ‘미운 오리새끼’였던 캐더린 메이이라는 처녀와 결혼하면서 장인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받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였던 것이다. 신부 캐더린의 아버지 유진 메이어는 윌 스트리트의 백만장자로서 신문사를 통째로 딸의 결혼 기념으로 사위에게 선물했다는 것.

둘째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캐더린과 뉴욕 법률회사의 멤버였던 조지 길레스피라는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길레스피는 워싱턴 포

스트 신문사를 위해 ‘二輪 주식 시스템’이라는 것을 고안하였는데 이것은 골자는 돈이 필요할 경우 신문사의 주식을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대성공으로 끝나 캐더린이 워싱턴포스트에서 침범하지 못할 지배력을 확보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길레스피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영인으로 초빙되었고, 세월이 감에 따라 캐더린은 “워싱턴에서 가장 힘 있는 여자”로 묘사될 정도가 되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경영자로서 그녀는 둘러싸고 있는 남성 간부들을 “놈들”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으며, 길레스피에 대해서는, 펠센탈의 글을 인용하자면 “그는 그냥 앉아 있는거야. 지가 뭘 알기나 해?”라고 호언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처럼 우람한 여성이 되기는 1963년 남편 필립이 자살하고 나서 경영의 전면에서 나서면서였다.

「권력, 특권,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는 이와같이 캐더린의 가문에 관련된 그리고 신문 편집자들과 회사 경영진들과 관련된 소소한 이야

기거리들로 가득차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손쉽게 서술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점 때문에 이 책은 읽기가 쉽다. 결국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의 거침없고 재빠른 행동들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남는다.

원칙적으로 신문에 대한 전기나 역사서술은 길게는 신문을 만든 사람들의 성공담, 짧게는 신문 기사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신문의 유통과정에 대한 연구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가령 어떻게 그리고 왜, 어떤 사건은 기사화되고 어떤 사건은 묻혀 버리는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지 않거나 연기시키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신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건에 집중하는가. 그렇다면 그것대는 무엇인가 등등.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캐더린은 워싱턴 포스트의 가공할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신문의 힘은 의제설정(agenda)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신문에 찍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운명이다”라고도 말한다.

포스트의 편집인들과 기자들은 머릿기사가 그들과 친분이 있는 고위직 인사에 관한 것일 경우 삭제해 버리기도 했는데 그 전형적인 경우가 케네디 대통령이였다. 케네디는 캐더린의 남편 필립과 친근한 사이였으며 캐더린이 사장이 된 후 편집 책임자였던 벤자민 브래들리와도 밀접한 사이였다. 케네디는 브래들리의 별장을 밀회장소로 곧잘 사용할 정도였다.

“케네디는 자신의 은밀한 행동이 결코 포스트紙나 뉴스위크(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계열의 잡지회사이다)에 활자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브래들리의 별장을 이용했다”라고 저자 펠센탈은 쓰고 있다. 또는 “피에르 쉐리거의 귀뜸에 의하면 브래들리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결코 활자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친분관계로 인해 포스트지의 편집자들과 기자들은 케네디의 피그만 침공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해서는 침묵했던 것이다. 그리고 캐더린 및 포스트지의 편집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존슨 대통령의 월남전 참전결정에 대해서는 선두에 나서서 그 정당성을 역설해 주었다.

반면, 닉슨대통령에게는 주지하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 워싱턴 포스트였다. 저자 펠센탈은 닉슨이 포스트지의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유지했다더라면 워터게이트 사건은 결코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포스트지의 수석기자를 역임했던 한 전직 기자의 입을 통해 캐더린이 닉슨을 만찬에 초대했을 때 이전의 대통령과는 달리 참석하지 않았던 때로부터 냉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대부분의 워싱턴 소재 언론사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워싱턴의 고위인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포스트지였다. 사실 많은 경우 고위 공직자와 언론사들간의 우호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신문의 독자들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시청자들은 보도되는 기사들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펠센탈은 워싱턴 포스트

가 기여한 공로, 즉 워싱턴 포스트의 세기적 두 특종인 워터게이트 사건과 국방성 비밀문서를 폭로함으로써 월남전 참전의 치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사회공헌의 모범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들 두 사건의 폭로로 인해 워싱턴 포스트 「회사」가 겪었던 심대한 타격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면 펠센탈은 캐더린의 승인 아래 저질렀던 세계적인 두 誤報, 8살바기 소년의 마약중독 보도와 히틀러 친필일기 발견 소동도 언론의 세기적 치욕이라는 점도 짚는다.

죽이라는 기사가 지미라는 가상의 소년을 등장시켜 자신이 다섯살 때부터 마약에 접했으며 지금은 학교에서 동료들에게 마약을 팔고 있다는 ‘소설’을 보도하여 풀리쳐 상까지 탔다가 되물리는 치욕을 당한 것이 마약중독 보도 사건이며, 동독의 헛간에서 숨겨진 히틀러의 일기를 찾았다고 하여 뉴스위크를 통해 “이제 나치시대의 역사는 다시 씌어져야 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2주 후 오보였다는 사실을 커버 스토리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 히틀러 친필일기 발견소동의 전말이다.

언론의 사회에 대한 기여의 범전을 보이다가 몇년 후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치욕적인 예를 보인 이 「회비의 쌍곡선」이 포스트지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결국 사건이나 인물의 차이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신문제작에 대한 비전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연결된 문화와 제국주의

영미문학, 특히 비평 분야에서 고대하던 에드워드 새이드(Edward W. Said)의 새 책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 380 pp. New York : Alfred A.Knopf)가 출간되었다. 제목을 두고보니 펄럭 비평문학사의 두 걸작, 매슈 아놀드의 「문화와 야만」(Culture and Anarchy, 1869)과 레이몬

드 윌리엄스의 「문화와 사회」(Culture and Society, 1958)가 떠오른다. 아놀드는 문화—그에 의하면 문화란 “인간의 사색과 언술들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의미한다—란 야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했다. 다시말해 문화를 야만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목상의 ‘and’는 ‘or’로 바꾸는 것이 옳다. 즉 “문화 혹은 야만”이라고 해야 내용과 합치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어법상의 문제는 윌리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윌리엄스는 19세기의 사회비평가들에게 문화란 “부르주아의 사회적 이상”에 대한 비판행위였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문화와 사회」는 “문화 혹은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새이드의 제목 속의 ‘and’는 적절하게 붙여진 접속사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글 속에서 ‘문화’와 ‘제국주의’는 서로 대척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꼼꼼히 따져보면 ‘and’를 ‘or’로 바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or’라든지 ‘as’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다. 다시말해 「문화와 제국주의」라는 제목보다는 「문화로서의 제국주의」라든지 「제국주의로서의 문화」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새이드가 문화를 아놀드적 의미인 학술과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자들처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이 두 교정은 하나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한데, 이 책에 의하면 첫번째 문화의 뜻, 즉 소설, 시, 오페라 등의 고급예술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성격은 궁극적으로 두번째 문화의 뜻, 즉 인류학자들이 논하는 ‘서유럽’의 문화와 동질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저자는 “서유럽 사람들은 식민지의 역사 가운데 화려했던 부분은 식민모국에 의한 개입의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유럽 사람들은 “식민지 문화는 기본적으로 변형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식민모국의 도시문화에 비해서 훨씬 기형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추정은 종래 식민모국의 후예들의 욕구와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제국주의에 참여

했던 名作들의 ‘치욕스런’ 과거를 은폐, 삭제하려는 욕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와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는 키플링과 같은 작가는 문학 교과서 속에서 밀려져 나왔다.) 찰즈 디킨슨은 저자의 주장에 좋은 예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제국주의가 중심적 성격(centrality)을 갖고 있으면서도 패러독스컬하게 디킨슨의 소설세계 속에서는 제국주의가 마치 변형적인 것(peripheral status)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 있다.

전통적으로 비평가들은 식민제국과 디킨슨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왔는데, 그것은 디킨슨의 작품들이 영국을 무대로 한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이드는 디킨슨의 작중 인물들이 식민모국과 식민지 변경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디킨슨의 소설적 구도에 의하면 제국의 역할은 외곽에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빅토리아조 영국사회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영국은 세계의 富가 쌓이는 곳이었음에도 디킨슨은 ‘미카우버’와 같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성격을 은폐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배후—실제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식민지와 관련하여 영위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마치 제국주의에 문화가 사용된 것이 제국의 후예들에 의해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은폐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콜럼비아 대학교수인 저자는 오래도록 그 자신 ‘俗趣’에 빠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이념을 옹호, 대변하면서 미국의 페르샤만 정책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오리엔탈리즘’(1978)과 같은 책을 저술했다는 점에 서이다. 그는 이 책 속에서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談話 방식들”을 분석하는데 유럽학자들의 담화방식들은 동양—특히 中東을 유럽과는 다른 이질적인 ‘남’으로 파악하는 상투적인 것들에 불과하며, 끝내 이들은 프랑스와 영국 식민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도와주는 데 복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새이드 교수로서는 이러한 담화

방식의 한계가 서유럽으로 하여금 지배하고자 했던 땅들의 현실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지금도 그러한—까닭이며 또한 그의 선진적인 연구가 식민주의에 관한 논의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오늘날 문학연구에 주요 추세인 문화와 정치, 지식과 권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처음 시도했던 비평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식민모국인 서방세계와 식민지였던 여타 지역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그의 저작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독자들도 있을 터인데 그것은 그가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前作들에서 제기하였던 문제들이 다시 환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가우리 비스와나단의 「정복의 가면」이라든지, 크리스토퍼 밀러의 「버어있는 어두움」 그리고 크와메 안토니 아피아의 「우리 아버지 집에서」와 같은 작품들은 재록되고 있다.)

## 모택동 치하 중국지식인의 영문 회고록

1949년 외국에 살던 수천만의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닝쿤(Wn Ningkun)은 공산군의 승리에 환호를 지르면서 조국의 앞날에 희망을 가졌다. 그가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영문학 연구를 잠시 중단하고 조국의 부름을 받아 북경의 한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51년이였다. 2년 후 그의 서구적 사고와 그의 전공이 부르주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는 우파인사 및 반혁명분자라는 딱지가 붙었고 이로 인해 그는 곧 가솔을 이끌고 “노동을 통한 정신개혁”을 하기 위해 변방으로 추방되었다.

뒤이어 감옥에 갇히게 된 우닝쿤은 1958년 잘못된 계획임이 판명된 대약진 운동의 여파로 휩쓸린 전국적 기근 때문에 거의 이사상대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런 계속된 희생양의 삶은 소설 「25시」에서 보여졌듯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것이지만, 그의 희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가혹한 희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이 1966년에 시작된 문화혁명이었다. 인민재판과 가혹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은 1976년 모택동의 죽음과 사인방의 몰락으로 겨우 마감지를 수 있었다. “무산자 계급의 적”으로서 우닝쿤이 당한 고통의 세월은 22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학자로서 모택동 치하의 상세한 회고록을 영문으로 출판하기는 우닝쿤이 처음이다. 그것이 최근 상재된 「눈물뿐인 삶」(A SINGLE TEAR: A Family's Persecution, Love, and Endurance in Communist China. 368 pp. New York: Th Atlantic Monthly Press)이다. 이 책은 한 순수한 남자와 그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무자비한 고통의 기록이자 국가가 어떻게 충성심이 강한 지식분자를 파괴시켰던가에 대한 통절한 증언록이다. 그것은 양지양의 서정적이고 묘사적인 ‘호주에서의 삶’으로부터 6장’이라든지, 니엔 쉹의 열정적인 ‘상하이에서의 삶과 죽음’, 리우 빈안의 사색적인 ‘고양된 충성심’ 그리고 중창의 감각적이고 눈길을 끄는 영웅담 ‘거친 백조들’과 같은 글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시의 고통을 단순한 개인의 회고록으로부터 훌륭한 시대의 증언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부제에서 보여지듯 한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그를 희생양으로 몰았던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는 거의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를 이리 저리로 휘둘렀던 정치 바람의 성격에 대한 해석도 일체 삼켜져 있다. 알지 못할 힘에 의해 이산되었다가 다시 결합하는 가족 流轉의 고통은 인내심 많고 지혜로운 아내 리위카이(Li Yikai)의 도움을 받아 더욱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다.

우닝쿤은 그의 고통이 단순히 자기 개인만의 유별난 운명이 아니라 모든 중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공통적인 것임을 분명히 한다. 60년대 초에 휩쓸린 기근에 대해 그는 “安徽省의 농촌지역만 해도 수백만의 농민들이 굶어죽었다”고 증언한다. 계급의 적을 적출하려는 당의 노력에 대해서도 “여섯명도 안되는 ‘진

짜 우익’—사인방을 말한다—을 잡기 위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은 오십만에 가까운 결백한 지식분자와 그의 가족들을 22년 동안 연옥으로 몰아넣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문학적 전거를 드는데 익숙해 있다. 현학적이고 혹은 딱딱하기조차한 서양 문학전공 교수로서 우닝쿤도 자신의 논문에서 셰익스피어나 T.S. 엘리엇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고 있다. 서양의



우닝쿤.

독자들조차 방대한 그의 인용문들을 보면 얼떨떨할 정도일 터이다. 그러나 서양고전문을 특히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고통 속의 우닝쿤을 버티게 해준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북서부에 유배되었는 동안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황량한 북구의 얼어붙은 하늘 아래서 피끓는 고통으로 살았던 왕자의 아픔과 함께 살고 있다. 덴마크드 하나의 감옥이 아니었던가!”

누선을 자극하는 후기에서 우닝쿤은 그가 전전하던 유배지에서 잠시잠깐 만났던 교수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회상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죽었다. 저자는 암으로 죽은 장모의 삶에 대한 기록 속에서 자신의 삶을 결론짓고 있다. “장모님의 삶은 고통에 가득찬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단순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바깥에서 가해지는 모략과 저주를 버릴 수 있는 힘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고마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